거짓말 뒤에 숨겨진 참된 마음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㊱ '소용없어 거짓말'(2023)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을 구별하는 목솔희와 베일에 싸인 천재 작곡가 김도하가 5년 전 최엄지 사건을 계기로 만나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두 사람의 로맨스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거짓말과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꼭 종교가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늘 어른들에게 듣던 말이다. 당연하다. 남을 속이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정은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받아 지녀야 하는 오계의 하나이고, 입으로 짓는 악업을 대표할 만큼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이다. 그런데도 선의든 악의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단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의 주인공 목솔희(배우 김소현)는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이름처럼 목소리와 관련된 신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실의 종이 울리듯이 귀에서 종소리가 난다.

'내 아이가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줄 돈 안 드는 재주를 타고나기를' 온갖 종교를 향해 간절히 빈 어머니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능력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주에 가깝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자 나중에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순간 어른들을 향한 배신감은 쌓여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위안의 말조차 거짓임을 확인하는 어린 솔희는 거짓말이 나쁘면서도 슬픈 것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늘 확인하고 살고 있으니 세상천지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능력을 살려 검사나 경찰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공부에는 소질도 없고,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돈벌이에 한시가 급한 솔희는 결국 '진실의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이라고 내세우며 일명 '라이어 헌터'의 삶을 산다. 용하다고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타로 카페로 위장한 솔희의 상담소 앞에는 의뢰인들이 타고 온 최고급 세단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내 저작권료 수입 1위의 작곡가 김도하(배우 황민현)는 최근 뮤직어워즈에서 최고의 작곡가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 전망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요새 삼아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면 검정 옷에 검정 마스크를 쓴다. 기획사 관계자 극히 일부만 얼굴을 알 뿐 그 누구도 작곡가 김도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김도하를 대신해 작곡가 상을 받은 가수 샤온(배우 이시우)이 트로피를 전하기 위해 도하의 집을 찾아오자 이 모습을 포착한 연예부 기자들이 열애설 기사를 낸다. 그 후로 펜트하우스 근처에 기자들이 계속 머물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도하는 엔터사 대표 조득찬(배우 윤지온)이 사둔 빌라로 피신한다.

피신한 빌라에서도 검정 옷과 검정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도하는 주민들에게 동네에 출몰하는 변태라는 오해를 받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도하의 절규를 알아준 솔희 덕분에 의심을 벗는다. 이때 도하가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는 주민들의 말에 답하는 솔희의 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에 도하는 5년 전에 버스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솔희였음을 알아차린다.

5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최엄지(배우 송지현)가 실종됐다며 오빠 최엄호(배우 권동호)가 서울행 버스까지 도하를 잡으러 온 적이 있었다. 마침 솔희는 거짓말이 들통나 조직에서 쫓겨난 건달을 피해서 도하와 같은 버스에 탄 상황. 엄호는 서울로 도망가는 거냐며 윽박지르면서 도하를 구타하는 가운데, 솔희를 잡으러 온 건달까지 버스로 다가오는 상황. 엄호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자 솔희는 도하의 여자친구를 자처하며 엄호를 버스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는 도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짓말 구분하나 믿을 이 없는 목솔희와
은둔 '천재 작곡가' 김도하의 러브 라인
거짓말과 믿음 관한 통찰 보이는 드라마
근기 따른 방편엔 행복 이끄는 진심 담겨



'소용없어 거짓말'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얼마 후, 실종됐던 엄지는 결국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고 도하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TV에서는 도하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동창의 인터뷰가 흘러나왔고, 인터넷에서는 살인자 신상이라며 졸업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도하는 김승주라는 원래 이름을 버리고 도망가듯 고향을 떠났고 천재적인 재능으로 곧 유명한 작곡가가 되지만 세상에서 흔적을 지우고 숨어버린 것이다.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목솔희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천재 작곡가 김도하가 5년 전 최엄지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키워가며 사건의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거짓말과 믿음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할 때는 유독 진실과 거짓에 엄격해진다. 혹시나 속을까 봐. 믿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봐. 그 불안을 잠재우려 이것저것 확인하려 든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찾아오는 믿음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그저 사랑하니까 믿는 건 자칫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작가는 이 드라마가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닌, 믿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솔희가 거짓말을 가려내는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런 솔희 능력의 한계는 녹음이나 전화 통화로는 거짓말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거짓말과 진심 사이의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주제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간 자리. 연신 어딘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친구는 어디냐는 질문에 회사라고 답하고 여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 당연히 모두 거짓말. 솔희가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알려주고 떠나려는 순간, 서프라이즈 청혼 이벤트가 벌어진다. 남자친구의 거짓말이 사실은 모두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그랬던 것.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그저 믿기만 했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텐데, 솔희 역시 무안하다.

불교에서는 이런 진심이 담긴 거짓말을 방편이라고 한다. 방편이라 하면 〈법화경〉이 대표적인데 그중에서도 수레 이야기가 유명하다. 외출하고 돌아온 장자의 눈앞에 집이 불타고 있고,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세 아들은 나올 줄을 모른다. 이때 장자는 바깥에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가 준비돼 있으니 세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자의 이 말에 뛰쳐나온 세 아들의 눈앞에는 세 개의 수레가 아니라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솔희가 있었다면 장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난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내겠다는 장자의 진심이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놀랄까 봐 세 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수레가 바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불 난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낸 장자는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아들 모두를 태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세 아들 역시 아버지인 장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방편은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방편은 중생의 욕망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방편의 목적은 욕망이 아니라 궁극의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이다. 불교에서 행하는 방편이라는 거짓말 뒤에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진심이 담겨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거짓말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방편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불보살님이 우리 곁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더라도, 알아차리고 정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